

제공일자	2009. 2. 4(수)	담당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368-4433 총 2매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관련 손익 변화와 대응

추세적 변동요인으로 인해 위험률차 부문에서의 성과 하락 예상 - 생명보험회사, 향후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 강구해야 -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손익 변화와 대응』이라는 테마진단 리포트를 작성한 보험연구원(원장 : 나동민)의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관련 성과가 악화되고 있는데, 근본적 이유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관련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005~2008년 위험보험료 규모는 평균 8.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지급보험금은 11.5%나 증가하여 위험률차익률(1-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락 현상은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익률이 낮은 생존보장 관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 경과년도 증대에 따른 종신보험의 초기 선택효과 소진, 언더라이팅 기능이 미약한 비대면 판매채널(홈쇼핑, TM, CM) 의존도 증가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소득 증대 및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기 암 검진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질병 발생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위험률차 부문에서의 성과가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률이 증대되는 외부요인의 영향력이 내부요인보다 더 강하기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첫째,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위험률차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이익률 수준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생존담보 관련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품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생존보장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및 자동갱신(renewable)**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험가입 후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할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

** 일정한 보험기간(1, 3,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험률 및 손해율을 다시 산정한 보험료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

셋째, 상품설계 측면에서 중복보장 문제를 개선하고 생존담보와 사망담보를 적절히 혼합하여 자연 헤지(natural hedge)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비대면채널의 사고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양호한 담보 및 표적집단에 대해 비대면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위험률차 관련 장래 손익을 투영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및 지급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